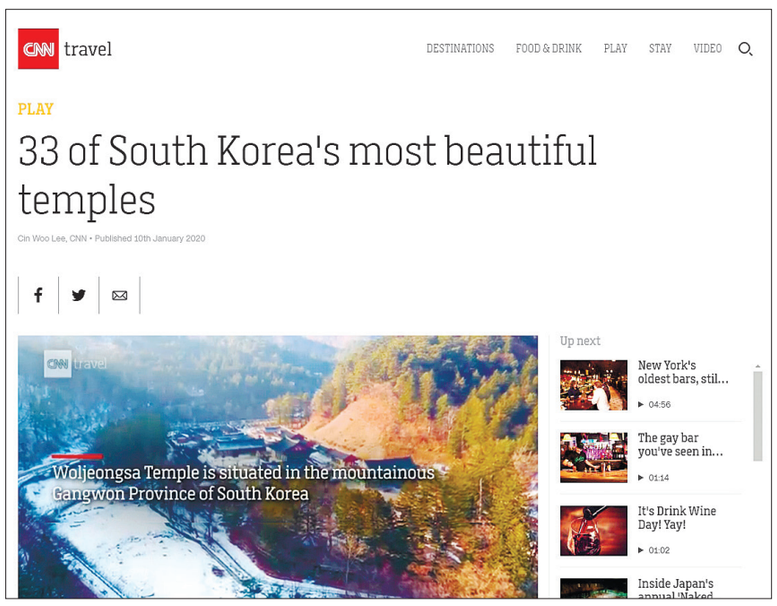
“가장 아름다운 명소는? Korea Temple!”

CNN 한국사찰 33곳 선정
1월 10일 travel판에 발표

평창 월정사 영상 포함해
참선 · 사찰음식 등도 소개
“겸손 · 희망 얻을 수 있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CNN travel 사이트 화면. 월정사 영상과 사찰 33곳 소개가 실려있다.

미국 CNN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을 선정하고 한국 사찰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하는 기획 보도를 해 화제다.

CNN은 1월 10일 인터넷판 travel 채널의 PLAY 기획에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신우 CNN리포터의 칼럼 형식으로 쓰인 이번 발표에서는 태백 망경사, 곡성 태안사, 정읍 내장사, 청송 대전사, 춘천 청평사, 보은 법주사, 순창 강천사, 영주 부석사, 구례 천은사, 김제 금산사, 경주 골굴사, 구례 사성암, 여수 향일암, 공주 마곡사, 동해 삼화사, 영천 백흥암, 양산 통도사, 담양 보리암, 순천 송광사, 포항 오어사, 봉화 청량사, 순천 선암사, 진천 보탑사, 구례 화엄사, 진안 탑사, 화순 운주사, 해남 대흥사, 화순 쌍봉사, 부산 범어사, 구례 연곡사, 서울 천축사, 남양주 수종사, 울진 불영사 등이 포함됐다.

CNN은 기사에서 “한국에는 약 900여 개의 전통사찰이 있으며, 사찰 수는 2만여개에 달한다. 이들 사찰을 참배하는 것은 겸손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거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찰의 대부분은 산 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풍수지리적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수많은 아름다운 사찰이 있지만 900여 곳을 모두 방문할 필요는 없다”며 대표적인 사찰을 꼽았다.

이번에 소개된 사찰 대부분은 산중 사찰이지만, 순천 송광사, 부산 범어사, 양산 통도사와 같이 조계종 교구본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번 뉴스에서 평창 월정사의 경우 영상을 통해 별도로 CNN에 소개되기도 했다. CNN은 “강원도 산중에 있는 월정사는 60개가 넘는 전각과 8개의 선원, 22개 탑으로 이뤄진 사찰로 한때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다시 지어진, 한국불교의 전형”이라며 “사찰에서 국내외 방문객들은 한국불교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적, 인종을 불문하고 사람들은 사찰의 생활방식을 겪게 된다. 참가자들은 스님과 차담을 나눌 수 있으며, 사찰음식도 체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참선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CNN은 “참선은 한국인들의 선명상으로, 참선 수행에 대한 깊은 이해도 얻는다”며 “서울에서 월정사는 기차로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전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재가인들이 이곳에 와서 선수행을 통해, 마음치유를 할 수 있는 문화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그동안 한국사찰을 한국의 명소로 많이 소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2년 강남스타일 유행 당시 강남의 명소로 강남 봉은사를 소개했으며, 2016년 CNN은 한국에서 가볼만한 곳 50선 중에 합천 해인사를 소개했다. CNN은 2018평창올림픽을 앞두고서 월정사와 강원도 사찰을 소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CNN의 발표에 대해 불교여행업계는 전통사찰은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에 적극적인 홍보와 외국인을 위한 해설사 제도 등에 대한 제안을 내놨다.

‘도박의혹’ 법주사 말사주지 직무정지
조계종 2월 17일 결의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승려 도박의혹이 불거진 법주사 말사주지들의 직무를 정지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2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법명 스님(충주 대원사 주지) △혜도 스님(옥천 구절사 주지) △각문 스님(단양 원통암 주지) △혜우 스님(인제 문안사 주지) 등 4명의 말사주지 직무정지를 결의했다. 이는 도박의혹이 불거진 8명의 스님 중 현재 4명이 말사주지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 스님들은 현재 법주사 국장소임을 모두 사직한 상태다.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에 대한 징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현재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해외성지순례 일환으로 스페인에 체류 중이어서 귀국하는 대로 차기 회의를 소집해 다룰 전망이다. 이 같은 결과는 본사주지의 징계 여부를 총무원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결정하기 부담이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주사 도박의혹은 중앙징계위원회와 별도로 조계종 호법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호섭 기자

7대 종교지도자, 가톨릭 역사 탐방
종지협, 2월 12~21일 스페인 · 포르투갈 순례



국내 7대 종교 수장들이 스페인광장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조계종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의장 원행)는 ‘이웃종교체험 해외성지순례’ 일환으로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가톨릭 역사문화를 탐방했다. 순례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종지협 운영위원 덕조 스님 등이 참가했다.

순례단은 2월 12일 바르셀로나에 도착해 황영조 기념비를 시작으로 바르셀로나 대성당,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스페인 광장, 세비야 대성당, 톨레로 대성당 등 다양한 가톨릭 역사유적을 탐방했다.

17일 톨레도 대성당에서 원행 스님은 “인종, 종교, 나라마다 따르는 종교도 제각각이고 신을 모시는 형식도 다르지만 신앙심은 모두 같다”며 “가톨릭에서는 신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는 것처럼 불교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것으로 신에 대해 예경을 올린다”고 말했다.

돈 후안 미겔 톨레도성당 참사회의장은 순례단에 성당의 역사와 특징을 전했다. 그러면서 돈 후안 미겔 참사회의장은 “각 종교에서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같은 뜻으로 원하는 바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법정 스님 향취 그대로…10주기 법회
맑고향기롭게 도량 길상사
시민 · 불자 1000여 명 운집
생전영상 “저마다 보물드러내라”
생생한 법문에 좌중 눈물 · 웃음
사진전 등에도 대중 발길 이어져



법정 스님 상좌 스님들이 스님 영전에 헌공을 올리고 있다.

‘무소유’를 실천해 우리 사회에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을 전한 법정 스님의 10주기 추모법회가 2월 19일 서울 길상사에서 봉행됐다.

문도회와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를 중심으로 열린 이날 추모법회서는 법정 스님의 ‘스스로행복하라’ 영상법문 공개를 비롯해 10주기 특별집 배포 등이 이뤄졌다. 법회에는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등 스님들과 법정 스님을 그리는 불자대중 1000여 명이 참여했다.

법회서는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의 헌향에 이어 문도 스님들의 헌다와 헌공, 대중 스님들과 맑고향기롭게 임원진의 헌화가 이어졌다. 특히 길상사를 보시한 길상화 보살의 딸인 보월화 보살이 헌화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법정 스님의 영상 법문은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카메라 기자들은 신도들이 안보이니 좀 비키라”는 영상 법문에 숙연했던 대중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다.

스님은 영상을 통해 “‘인간성이 소멸되어 간다. 인간의 감성이 사라져 간다’라고 말하는데, 자연과의 교감이 단절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감성이 녹슬고, 인간성이 메말라 간다. 그래서 살아있는 미라가 된다”며 “꽃을 보라. 누구를 닮지도 않았고, 남이 지니고 있지 않은 보물을 저마다 지니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움이다”고 법문했다.

법회가 진행된 설법전이 협소한 관계로 많은 대중이 밖에 서서 스님의 10여 년 전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추모법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스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실천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추모”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월 18일 개막한 ‘비구 법정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길상선원에도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법회 후 배포되는 10주기 특별판 법어집을 받기 위해 긴 장사진을 이뤘다.

〈관련 사진전 화보 5면〉

노덕현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3월 17일 개원
안건접수 10일까지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가 3월 17일부터 5일간 회기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제9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안건접수는 3월 10일까지, 종책질의는 12일까지 마감이다.

제218회 임시회서는 종법 제 · 개정의 건을 비롯해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등이 이뤄진다. 또한 인사안으로 △재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인사심의특별위원 선출의 건과 학교법인 동국대 임원(이사 · 감사) 및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이 다뤄진다. 아울러 불기 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결산 승인과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결산검사도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점심제공〉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200, 010-8779-6926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주 관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자기 마음 바로 보고 치유하기
▶가정, 사회에서 갈등 지혜롭게 해결하기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1일차 (5월 20일 수)	2일차 (5월 21일 목)	3일차 (5월 22일 금)
마음치유와 수행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의식에 관한 통찰과 마음공부, 그리고 사찰발전을 위한 실제적 적용방안
현대인의 마음공부	현대인을 위한 포교	
	내 마음의 용광로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나로부터의 시작
제33기 모집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굴려 놓아 원만하게 풀어나가며,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여 자성을 밝혀 나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대 상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일 정 2020년 3월 28일(토) ~ 5월 30일(토) 총10주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장 소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3층)
모집인원 총50명(선착순 모집)
수 강 료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접수
(네이버에서 ‘함께하는 진화’를 검색)
문 의 031-470-3200, 3201